

## OECD 개발 센터 보고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더 광범위한 비전이 필요하다”

제 6 차 OECD 세계포럼 3 일차인 11 월 29 일, OECD 개발센터 마리오 페치니 소장은 '2019 글로벌 개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페치니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웰빙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2019 개발전망에 관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훨씬 전에 진입한 선진국들은 신흥 경제국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웰빙을 증가시켰다. 그에 반해 많은 신흥 경제국들은 보다 빠른 GDP 성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웰빙 개선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은 개발 전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러한 전략은 경제, 사회, 환경 전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성장이 자동으로 웰빙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발 전략은 개발에 따른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제 변화를 위한 시기로 무르익고 있다며, 1990 년대 이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개발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무역, 금융 및 이주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변혁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브라질과 같은 주요 신흥 경제국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파급되고 있다. 2011-2016 년에 걸쳐 중국 및 인도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여는 각각 29% 및 11%에 달했다.

현재 개발 도상국은 이전의 선진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하게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포용성,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규범의 출현,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유례없는 인구 급증, 사람들의 높은 이동성 혹은 빠른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개발 계획은 현재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개발을 장려하는 새로운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OECD 개발센터장이자 OECD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인 마리오 페치니에 의하면 “남남 협력, 이주와 개발의 연계 혹은 사회 보장을 빈곤층에 제공하는 것과 같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함께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는 또한 “일단 필요한 자원 및 정치적 의지가 있는 경우, 역사적으로 개발 전략이 다각적, 참여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다자간 프레임워크에 기반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증명되어 왔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의 다차원적 절차는 성공적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19 년 글로벌 개발에 관한 관점들에 대한: 개발 전략 재고’ 보고서의 상세한 정보 혹은 해당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OECD 개발 센터의 언론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란다.

(이메일: [bochra.kriout@oecd.org](mailto:bochra.kriout@oecd.org), 전화: +33 145 24 82 96)